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영업이익 극대화

전북도·군산시, 20개 기업·기관과 R&D 등 협력 '가치사슬' 구축 MOU 2024년까지 4000억 투자·2000명 고용 창출...영업이익 7371억 기대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와 전북도, 20여개 기업·기관은 지난 18일 군산대학교 회의실에서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열고 참여 기업 간 상호연계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밸류체인(Value-Chain, 가치사슬)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밸류체인은 제품 연구·개발(R&D)부터 조립·공, 마케팅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 가치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이들 활동을 연계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이익을 늘리는 한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하는 취지다.

참여 기업과 기관들은 우선 연구개발 과제 발굴,

인력 양성, 마케팅 및 판매, 물류 등 1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품업체와 거래, 원자재 구매 등도 공동으로 하고 제품 인증 등에 대해서는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을 진행하며 추가로 아이템을 발굴해 함께 추진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향후 3년 동안 3724억원에서 7371억원으로 3647억원(98%)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중견 벤처기업인 명신 컨소시엄과 에디스모터스, 대장모터스, 엘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이 참여해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노·사 및 원·하청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업체들은 2024년까지 4000여억원을 투자해 연간 17만7000여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2000여명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18일 군산대학교 회의실에서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을 고용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일자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준비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실행의 길

을 가야 한다"며 "성공을 위해 상호 양보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세무서, 향교동 시대 신축 이전... 오늘부터 업무

남원세무서는 22일부터 남원시 향교동 신청사(사진)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사는 연면적 275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향교동 232-31번지 향기원 인근에 신축됐다.

1층에는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세원관리과(부가팀·소득팀)와 새롭게 문을 연 국세신고·상담센터가 있다. 2층에는 세원관리과(재산법인팀)가 있으며, 3층에는 체납징세과와 서장실, 4층에는 대회의실이 마련돼 있다.

남원세무서 관계자는 "노후하고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피로도 해소에도 기여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모암 동산(오른쪽) 주지스님이 지난 18일 팔만대장경 한역본인 '한글대장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한역 '한글대장경' 280권 순창군립도서관, 사찰로부터 기증 받아

순창 대모암... '축역대장경' 12권도 보유하고 있다.

한글대장경은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이 '고려대장경' 재조본 영인본을 1964년부터 2001년까지 번역해 발간한 것이다.

도서관 측은 한글대장경을 서가에 비치해 군민에게 대출할 예정이다.

대모암 동산 주지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 경전인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된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한글대장경을 접해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ng@kwangju.co.kr

순창군립도서관은 불교문화의 정수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우리말로 옮긴 '한글대장경' 280여권과 '축역대장경' 12권 등 300여권을 사찰인 대모암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모암은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조계종 선운사에 속한 전통사찰이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48호 아미타삼존불상을

'보석 도시 익산' 널리 알려요 보석박물관, 문화상품 공모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보석의 도시 익산'을 널리 알릴 보석문화상품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익산의 다양한 역사 문화재와 관광지를 모티브로 한 귀금속 및 보석 관광기념품이다.

신청서와 작품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보석박물관에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에는 총 1300만원의 상금을 주며, 보석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되는 기회도 부여한다.

보석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보석 전문 박물관으로 12만여점의 진귀한 보석과 원석, 화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숲에서 놀고 느끼며 오감 통한 상상력·창의력 '쑥쑥'

정읍시 '유아 숲 체험원' 운영

정읍시는 아동들의 정서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유아 숲 체험원'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장이 연기된 체험원을 최근 개원했다.

정읍시공원 일원에 조성된 체험원은 아동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이다.

이 공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이 숲에서 놀며 보고 느끼는 등 오감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숲 놀이터다.

현재 전북에는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읍시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유아 숲 체험원은 숲속 단풍나무와 소나무 등을 활용한 체험공간, 통나무다리 건너기, 네트 오르기 등으로 모험심과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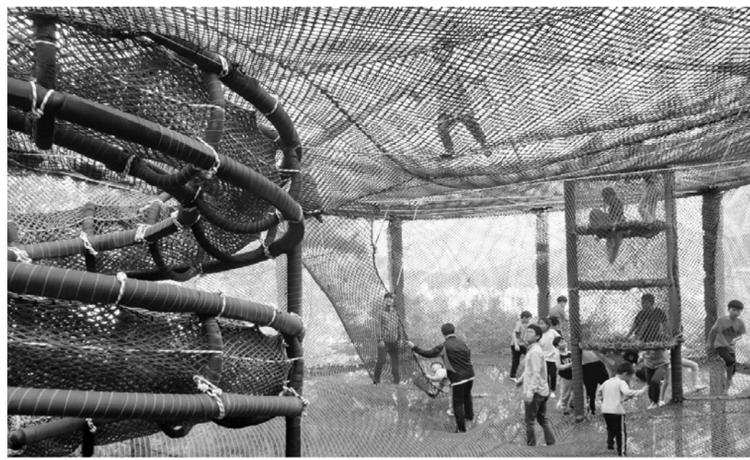
또 숲에 사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숲 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 11월까지 2명의 산림교육 전문가가 매달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숲속 자연물을 이용한 '가족 얼굴 꾸미기'가 진행된다.

정읍시는 지난 2월 모집한 정기반 외에 수시반도 운영해 지역 내·외 더 많은 유아들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체험원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는 최근 아동들의 정서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유아 숲 체험원'을 개원했다.

남원 춘향제, 정부 지원 받는다 '경쟁력 강화 축제' 선정

남원 춘향제가 정부의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남원 춘향제는 축제 콘텐츠 개발 제작,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받는다. 남원 춘향제는 청년층이 참여해 축제 기획 및 마케팅을 맡는 청년 현장연수 시범축제 대상에도 뽑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